

“습의 의식 골고루 체험했어요”

군중병 첫 합동수련

“법사님, 목탁은 어떻게 쳐야 올바른 것입니까?”

“목탁은 정성을 다해서 합장하는 자세로 쳐야 하는데 <반야심경> 등 경전을 독경할 때는 시작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의미로 잠시 호흡을 멈췄다가 치는 것이 좋습니다.”

12일 조계종 포교원 주최 ‘불교 군중병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봉선사 설법전. 불교습의 교육을 맡은 재각 김재욱 법사(군순단 교육국장)가 목탁치는 요령에 대해서 직접 실습해보이며 설명하자 군중병들은 고개를 끄덕거린다. 강의가 끝나자 목탁치는 요령, 절하는 자세 등 배운 내용을 곧바로 따라해 보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듯 일부 군중병들은 옆 사람 눈치만 살핀다. 목탁치는 데 자신이 없는 군중병들은 휴식시간에도 지도법사와 스님들에게 개인지도도를 받았다.

14일까지 3군사령부 예하 연대급 군중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수련회는 중단차원에서 처음 주최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사실 군중병 집체교육은 그동안 각 사단별로 분기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8월 군순단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 집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해 이번에 시범적으로 열린 것.

이번 수련회는 ‘신도 기본교육’ 강의로 시작으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의 ‘불교상담’ 특강, 목탁과 예불 등 습의 실습, ‘찬불가와 율동’ 실습, 법등별 주제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68명의 군중병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히 모든 식사가 발우공양으로 진행됐는데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열의가 대단했다.

3군 예하 68명 참가

내년 군단별 실시 검토

또 이상훈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국장의 ‘레크리에이션’ 실습시간에는 율동 하나라도 놓칠새라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에 참가한 율동식 병장(기갑여단)은 “연대내 대대급 군중병들은 법사님들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습의 의식들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무



◇12일 봉선사설법전에서 목탁치는 요령, 절하는 법 등을 배우는 군중병들.

연 이준석 법사(군순단 사회국장)는 “갑작스런 부대의 훈련 때문에 반수 이상이 참가하지 못해 아쉽다”며 “수용시설과 홍보부족으로 만족할만한 교육은 아니었지만 타종교처럼 중단이 관심을 갖고 대규모 수련회를 개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수련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군순단은 이번 수련회 결과를 분석해 대대급 군중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내년에는 군단별 수련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중병이란

군중병은 군종장교를 보조해 법회와 부대위문 등 각종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사병을 말한다. 지난 3월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군단과 사단에 배치돼 국방부 공식 인가를 받은 불교 군중병은 226명으로 집계돼 있지만, 연대나 대대급 군중병까지 합하면 7백여명이 넘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지리산권 종교인협’ 구성 결의

환경회의 참석 50여명

지역중심 생명운동 추진

지리산의 문화와 역사, 생태계 보존에 나서기 위해 지리산권 종교인 협회가 하나로 뭉쳤다.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 (상임대표 도법스님)와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도법스님)이 13일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지리산권 종교환경회의에서 50여명의 종교인들은 ‘지리산권 종교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지리산과 생명운동’ 제하의 주제 강연에 이어 이현주 목사(예수살기 대표)의 ‘생명운동과 종교는 무엇인가’란 제목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회의에

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중심 환경운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공동체적 생명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안 스님(산청 금수암, 정진국 신부(하동성당), 정국원 교무(하동교당), 엄음식 목사(함양 옥동교회) 등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9개 시군의 종교인들은 최근 운봉골프장 건설과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관광순환도로 개설 등으로 지리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리산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중심이 된 ‘지리산권 종교인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영주시 문화재 인근

고층아파트 승인 ‘말살’

영주시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가흥동 마애삼존불상(보물 제221호)과 선사시대 암각화(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8호) 인근에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저촉여부 검토를 소홀히 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

시청은 지난 4월 영주시 가흥동 일대 1만5천468㎡에 15층 2동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마애삼존불상 및 암각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 향토사학자들은 “봉인신라시대 초기 불교조각양식을 대표하는 마애삼존불상과 선사시대 암각화가 있는 경계구역과 100m쯤 떨어진 곳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청 관계자는 “이미 10년전부터 주변지역이 택지로 조성되었고 주공아파트도 건립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포교사교 25일 시행

조계종 제7회 포교사 교시가 25일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문 포교인력 선발을 목적으로 한 이번 포교사 교시에는 부산 259명, 서울 221명 등 모두 711명이 응시했다. 1차 합격자는 12월 26일 발표되며, 1차 합격자에 한해 내년도 상반기 중 실시되는 두 차례 연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02-725-6231

‘사형제폐지 포럼’ 국회서 개최

정대스님 등 8개국 대표 참석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과 한국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1 사형제폐지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사형제폐지론자인 야스다 요시히로(安田好弘) 변호사 등 아시아 8개국 대표들이 참석, 각국의 사형제도와 운송실태 등을 발표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운동방향과 연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형을 선고받고 34년간 복역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 석방된 일본인 멘다 사카에(畠田栄) 씨도 이날 포럼에 참석, 자신의 사형을 들려 줬다.

한국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서 축사를 한 김 추기경은 참석에 앞서 이만삼 국회의장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의 원만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30여개국 사형을 폐지하는 등 1990년대부터 사형제 폐지 추세가 뚜렷하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가맹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인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대법원 정화회의 조계종상대 상고 ‘기각’

“중단안정 기틀마련”

대법원은 13일 정화회의 정형스님 등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자격상실확인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중단사태 관련 소송이 일단락돼 조계종단 안정의 기틀이 마련됐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난 것을 계기로 종도의 화합과 종단 안정의 바탕 위에서 안으로 수행 중풍을 진작하고 밖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며 “종도대중과 국민

을 실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화회의는 지난 1998년 12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와 1999년 11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의 근거가 되는 중풍을 개정된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가 합법적이지 않고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격상실확인소’를 제기, 1999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2001년 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원우 기자

경불련, 김포에 ‘외국인 상담소’ 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이 21일 김포시에 16평 규모의 외국인 인권문화센터 상담소를 개설했다.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인권, 의료, 법률 부문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외국인 상담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하고 10여 대의 컴퓨터를 마련해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외국인 상담소 정진우 간사는 “김포 지역에

는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복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불련의 첫 외국인 상담소인 김포 상담소는 앞으로 한국어 등 언어 강의,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경불련은 생활용품과 컴퓨터 등의 후원물품을 기다린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참선·단청 실습 ‘열의’

제2회 외국인수행자 한국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9-12일 23개국 34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유 무형 문화재를 견학하고 체험하는 ‘제2회 외국인수행자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한국문화체험은 스이천 도자기 제작 △선암사 불화 단청 그리기 △송광사 참선과 선사와의 대담 △실상사 환경경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대스님(그리스·인터뷰 4년)을 비롯한 외국인 수행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흥미를 이끌어냈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체험한 것은 불화단청 실습과 면벽참선 수행. 법전스님(34세, Fa Zhen, 중국)은 “불화 단청 실습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



◇불화의 밑그림(초)을 그리고 있는 외국인 수행자들. 부처님 모습을 새겼고, 벽면을 마무리한 참선수행에서 한국불교의 깊이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12일 모악산 금산사를 방문한 외국인 수행자들은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동체심을 가져 수행정진하고 이런 진리를 국제사회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포교사의 역할을 해달라”는 월주스님(금산사 조실)의 당부들을 들었다. 김철우 기자

“종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상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만다라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만다라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만다라니 처방방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정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